

보도일시 (인터넷) 2024. 2. 12.(월) 11:00,
(지면) 2024. 2. 13.(화) 조간

배포 2024. 2. 8.(목) 오후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뜨거워진 바다> 발간

-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 기증 및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기관에 무료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해양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어린이들에게 해양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해양과학 동화책 <뜨거워진 바다>를 발간했다.

이 동화책은 해양학, 교육학, 동화제작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제작했다. 동화책에서는 '눈퉁이'라는 가상의 해양생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지구온난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동화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전국 1,200여 개의 국공립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동화책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동화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3월부터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www.kosm.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ocean@kosm.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아 대상 「줄어드는 빙하로 북극곰이 위험해요」, 초등학생 대상 「바다생태계의 위기 '바다산성화' 알아보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과학 동화책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깨우고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신강섭 (044-200-5223)

참고1

동화책 사진



동화책 외지



동화책 내지

□ 추진 배경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위한 생태전환교육 강조
 -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환경감수성 및 올바른 지식·태도 함양
- 기후위기에서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제작·배포하여 어린이의 해양환경 감수성 증진 및 해양친화 정서 함양

□ 주요 내용

- (동화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공감할 수 있는 해양환경 동화책 '뜨거워진 바다' 발간
- (환경교육) 동화책 효과 제고 및 학교밖 해양교육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동화책 연계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 2개* 개발
 - * 유아 대상「줄어드는 빙하로 북극곰이 위험해요」, 초등 대상「바다생태계의 위기 '바다산성화' 알아보기」
- (활용계획)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 동화책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 배포
 - (도서관) 전국 1,200여개 국·공립 도서관에 동화책 기증
 - * (방법) 전국 도서관 우편 배송(3.1.~) 및 도서관 이용률 조사(~12.15.)
 - (교육기관) 전국 국공립 교육기관에 동화책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보급
 - * (방법) 신청공고 및 모집(~2.29.) → 동화책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보급(3.1.~) → 만족도·교육효과 조사 및 운영성과 공유 등 환류(~12.15.)